

여수시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시민 공감할 단순명료한 목표 세워야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
여수만의 특징 담자 의견도

여수시의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단순 명료한 목표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수시가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시 여건에 맞는 '여수시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에서 여수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위원들은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가 단순 명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속가능발전 세부 전략에는 여수만의 특징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제·사회·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지속위와 행정전문자문단(TF) 30개 부서가 참석해 기본전략 초안을 검토했다. 이날 지속위는 용역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그에 맞는 행정의 역할을 제안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취합·조정했다.

천상국 지속위공동위원장은 "기본전략 목표에는 수치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행복도·편의성 등 지역민들의 삶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 시민



여수시가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은 "여수국가산단의 신산업 전환, 해양관광 활성화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 등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목표를 잘 반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10월에 예정된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여수시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5년 단위의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신청사 건립 현장
임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
대표 관광지 사진 51점 전시

순천시 신청사 건립현장이 갤러리 전시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순천시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시지부와 공동으로 신청사 건립 용지 가설 울타리에 순천 대표 관광지 사진을 전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사진작가협회 순천시지부가 제공한 관광지 사진 51점을 전시, 멋진 공사 현장의 미관을 보다 밝고 흥미로운 예술의 공간으로 바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 대표 관광지 사진과 함께 신청사 준공 후 조감도도 내걸어 시민들이 신청사의 전체적인 모습과 세부적인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사계절을 담은 애니메이션 그림을 통해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현재 임시주차장(중앙 2길)까지 이어지는 약 210m의 가설 울타리에는 외곽에서부터 도심으로 들어와 신청사를 둘러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까지의 여행 필름을 일러스트 그림으로 표현해 그림 속 장소가 어디인지 찾아보는 재미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순천만국가정원의 '스페이스 브릿지'와 EBS 인기 애니메이션인 '두다다쿵' 캐릭터를 벽화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맨손 전어 잡으러... 보성 울포 바다에 풍덩!



지난 17일 보성울포소출발해수욕장에서 개막된 제16회 보성전어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이 '전어잡기' 행사에서 제한된 공간에 풀어놓은 전어와 송어를 잡기위해 바다로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고흥군 도양 복합문화센터 건립 '순항'

2961㎡ 규모...내년 6월 개관 목표

고흥군 도양읍의 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가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신축 중인 복합문화센터는 연면적 2961㎡ 규모이며, 키즈카페·수영장·다양한 교육시설을 갖춘 주민생활 밀착형 복합시설이다.

애초 이 곳에 추진된 사업은 2018년 힐링해수탕 건립이었으나, 건설사 부도로 사업이 중단됐다.

군은 이에 따라 2022년부터 해수탕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재검토했으며, 주민설명회도 갖고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군은 기존 사업에서 도양 복합문화센터로 사업명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해 신축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흥군 도양 복합문화센터 조감도.

고흥군 관계자는 "내년이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만큼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광양시 민·관협력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 실천

독거노인 등 에어컨·냉장고 지원

광양시가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광양시는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의 주거약자에 대해 민·관 협력으로 세탁기·에어컨·냉장고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복지를 실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양읍 맞춤형복지팀은 온열질환과 식생활 영양 불균형 위기에 놓인 홀몸 어르신, 중증질환자, 장애가구, 사례관리 및 은둔형 위기가구 등 총 24가구를 현장 확인을 통해 발굴해 연계했다.

민관협력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단체들의 온정과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먼저 광양시사회복지협의회는 독거노인 및 장애가구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6가구에 에어

컨 설치 4대, 냉장고 1대, 선풍기 1대 등을 지원(300만원 상당)했다.

또 광양중앙로타리클럽은 중고가전 에어컨 3대, 전자레인지 1대, 세탁기 1대, 밥솥 1대를 기증했으며, 광양인테리어는 지체(척추)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가구에 중고 생활가구로 각각 침대 1대와 수납가구 2종을 지원했다.

광양성당 빈첸시오 봉사단은 여름철 영양 불균형 예방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1인 위기가구 12가정에 매월 2회에 걸쳐 반찬을 지원하고 및 안부살폈으며 대상 가구에 선풍기 1대, 가스레인지 1대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번 지원을 받은 한 주민은 "최근 날씨가 너무 더워 힘들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에어컨을 선물받게 돼 정말 고맙다"고 광양읍사무소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 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구례군,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방제 당부

구례군이 최근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에 따른 병해충 발생 예방을 위해 적기 방제를 농가에 당부했다.

구례군은 벼 출수기에 세균성벼알마름병·이삭도열병·흰잎마름병·혹명나방·벼멸구 등의 병해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쌀 수확량과 품질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방제 시기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농민

들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군은 방제단을 대상으로 농약 취급 요령과 안전 수칙 등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방제 전 읍면별 이장 회의를 통해 방제 일정을 수립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